

2023. 8. 30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3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
 (설계공모 주관)
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
 (TF주관)
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설계부
 (사업주관)

도시공간기획담당관	김창규	2133-7640
공공건축1팀장	육근형	2133-7617
공공주택과장	신동권	2133-7050
공공주택계획팀장	김영희	2133-7060
건축설계처장	이세정	3410-7945
공공설계부장	정우진	3410-7967
관련 누리집	https://project.seoul.go.kr (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)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7쪽

서울시, 100년 미래 주거 청사진이 될 ‘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’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

- 6.7~8.28 설계공모 진행...작품심사 거쳐 “50년의 담합, 100년을 향한 열림(피에이씨건축사 사무소 등)” 작품 선정
- 개인 소외현상, 공동체의 해체 등 현대사회 문제에 ‘열린배치’, ‘열린 골목길과 마당’ 제안한 설계안 제시
- 옛 성동구치소 부지 약 1,1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...2025년 착공 목표

- 100년 후 우리가 살아갈 미래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까?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디자인의 미래주거를 위해 실시한 ‘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’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.
-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는 ‘송파 창의혁신 설계공모’ 당선작으로 ‘(주) 피에이씨건축사사무소(대표자 최대성)와 (주)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(대표자 김상길), (주)건축사사무소 가로(대표자 김기중)’에서 공동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- 당선작은 큰 틀에서 최근 아파트단지의 지역사회와의 단절, 단지 내부의 개인 소외현상, 공동체의 해체 등을 문제 제기하며 ▲열린 배치 ▲열린 골목길과 마당을 제안하며 이웃과 교류하는 공동체 주거문화를 만들고 경계없는 마을을 설계하였다.
- 당선작에 따르면 경계를 없앤 접지층(接地層)에서 시작된 보행동선은 커뮤니티코어(중심공간)으로 연장되어 단지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, 도시로부터 연속된 동선 계획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단순히 머무는 주거공간이 아닌 지역주민과 입주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성을 가진 커뮤니티 단지로 계획하였다.
- 심사위원회는 “당선작은 밀도의 재분배를 주제로 소규모 건물을 군도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특징으로 각 건물이 개별 특징을 가진 외관을 가진 점은 획일화된 아파트에서 벗어나 종의 다양성을 이룬 독특한 제안”이며 “일반적인 우리의 아파트 단지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섬처럼 도시 속에 떠 있는데, 본 설계안처럼 점형으로 배치한다면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주변의 도시와 잘 어울리는 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.”고 심사평을 전했다.
- ‘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’은 「서울시 도시·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」의 공공부문 시범사업으로 서울주택공사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총 공사비 약 3,877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주택 약 1,15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.
-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‘매력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’ 에서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손보고, 혁신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파격적

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「서울시 도시·건축 디자인혁신 시범사업」을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다.

-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는 공공부문의 디자인혁신 시범사업으로써, 현재는 물론 100년 후에도 통용될 새롭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인 공동주택 주거 대안을 찾기 위해 기존 공모와 다르게 세대수·평형·구조 등 제한을 최소화하고, 특별건축구역을 고려하여 공모를 추진하였다.

- 이번 설계공모에는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 등록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11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, 독특하면서도 참신하고 창의적인 공모안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평가받았다. 시는 두 번의 기술심사와 1차, 2차에 걸친 본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.

- 특히, 시는 심사품질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를 공고 전·후 총 2회 실시하였고, 심사 전 과정을 ‘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유튜브 채널(www.youtube.com/@projectseoul2023)’을 통해 공개하였다.

 - 2022년까지는 설계공모 공고 후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를 1회 운영했다.

- 당선자에게는 기본설계 계약 당사자로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, 이번 공공주택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선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사업승인, 2025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.

 - 신속한 주택공급, 공모당선작의 창의적인 디자인 콘셉트유지, 역량 있는 우수한 시공사 참여 등을 위해 기술제안 입찰방식(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)으로 발주 예정이며,

- 디자인 등 공모당선작의 창의적인 설계의도와 발주방식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, 설계변경 등 주요 업무시 공공건축관리자를 통해 공모당선자, 실시설계자, 시공사간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 시공시 건설현장 동영상 관리 시행 등으로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 사고·부실시공 방지 등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,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.
- **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“이번 설계공모는 기존보다 더 투명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심사제도와 디자인 혁신안 발굴을 위한 시도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”**며, **“앞으로도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여러 설계공모를 통해 ‘서울형 설계공모’의 진화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”**고 말했다.



업체명
(대표자)

(주)피에이씨건축사사무소(최대성) +
(주)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(김상길) + (주)건축사사무소가로(김기중)

작품 설명

- ‘50년의 달핍, 100년을 향한 열림’ 사이트에 대하여 옛 성동구치소는 약 50년 전 건축되고 이후 도시화 과정중에 ‘도시 속의 섬’으로 고립되었다. 이로 인해 지역 사회의 공간적 인프라는 단절적으로 형성되었고 균형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었다. 이번에 열리게 된 사이트는 다시 지역 사회의 스며 들어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마을 네트워크의 고리가 되어야 한다. ‘아파트 100’에 대하여 함께 고민한 서른 개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하였다.
- 1. (다양성) 현대 도시의 창의적 가치는 공유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. 도시-건축적으로 열린 시스템은 삶의 다양성의 플랫폼이 된다.
- 2. (변화와 선택 가능성) 오늘의 다원화된 가치체계는 개인 자유의 확장으로 귀결된다. 단위 주거에서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선택 가능성의 구축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.
- 3. (지역 커뮤니티 연계) 함께 만들고 가꾸는 지역 공동체적 플랫폼 형성이 중요하며 모든 세대의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한다.



